

사회·심리적 패러다임에 의한 고령자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최 혜 지**

(건국대학교)

이 영 분

(건국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과 '계층적 성격모델'을 이론적 근거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을 결정하는 개념적 구조를 고찰하였다. '충주지역 고령인구의 보건·복지실태'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25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과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 사이의 인과관계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된 구조방정식모형의 모형합치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격의 표면적 특성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계층적 성격이론과 지식은 행동의도가 실질적 행동으로 표면화되는데 결정적 변인이라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논지를 실증하였다. 끝으로,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를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의 필요성 등 본 연구가 제안하는 사회복지의 실천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주제어 : 노인, 은퇴, 은퇴준비, 구조방정식모형

1. 문제제기

은퇴 후 삶의 질적인 보장은 재정적 안정을 기초로 담보될 수 있다(Carver and Baird, 1998). 따라서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는 각 국가마다 주요한 경제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근로자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는 실질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이 논문은 2003년도 건국대학교 특성화연구 지원에 의한 논문임.

** 주저자

(Walker, 1996).

특히 노년기 소득이 사적이전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소득구조의 특성상, 은퇴에 대한 불충분한 재정적 준비가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크다.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은 소득의 93%를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해 왔다(최성재, 2000). 근로소득, 개인연금, 자녀로부터의 지원과 같은 다양한 사적이전소득원 중 자녀로부터의 지원은 우리나라 노인이 가장 크게 의존해 온 일차적 소득원이었다. 그러나 부모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퇴조로 노년기 생계를 자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졌다. 결국 우리나라 노인은 공적이전소득이 개선되지 못한 상황에서 자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감소로 인한 사적이전소득의 축소라는 경제적 난제를 겪고 있다. 이는 노후의 재정적 안정이 은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적 준비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으며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의 실패는 곧 노년기 빈곤으로 연계됨을 시사한다.

또한 평균기대수명의 증가로 은퇴 후 생존기간이 연장된 것과 달리 은퇴 시기는 앞당겨지고 있다(Costa, 1998). 한국인의 평균기대수명은 1988년 70세에서 2002년 77세로 빠르게 증가한(통계청, 2005) 반면 비농가의 평균 은퇴연령은 같은 기간 동안 64세에서 65세로 거의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장지연, 2002). 이는 은퇴 후 삶은 연장된 반면 은퇴를 위한 재정적 준비를 실행할 수 있는 기간은 오히려 단축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노후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노동시장 진입과 동시에 은퇴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적 준비가 이루어져야 함을 피력한다. 따라서 은퇴에 대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적 준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가 갖는 미시적, 거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은퇴를 주제로 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주로 은퇴경로 및 시기(Beehr, Glazer, Nielson, and Farmer, 2000; Lo and Brown, 1999; 권승·황규선, 2004; 안종범·전승훈, 2004; 장지연, 2003; 김학주, 2002; 박경숙, 2001) 그리고 은퇴자금의 결정모형(Brown, Kerr, Johnston, 2003; Papke, 2003; Wakabayashi, 2001; Duflo and Saez, 2002, Horioka and Okui, 1999)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은퇴시기를 결정짓는 변인, 노동시장을 벗어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은퇴준비자산의 크기를 결정하는 변인 등에 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반면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잠재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를 결정하는 변인들을 규명하려는 학문적 노력은 매우 인색하였다.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에서의 개인차를 규명하려는 국외 연구들은 개인의 심리내적 원인에 주목하였다(Hershey and Mowen, 2000; Poterba, 1996; Singleton, and Keddy, 1991). 국외 연구는 개방성, 자각, 동기, 정서적 안정성 등 심리내적 변인들이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했다. 반면 국내 연구는 소득, 교육수준 등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 행동을 설명하고자 했다(문숙재·김순미, 1997; 배문조·전귀연, 2004).

그러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은 사회적 행동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심리내적 변인과 배경적 변인의 양측이 균형을 이룬 시각을 통해 규명되어야 한다. 인간의 행동을 심리내적 과정의 부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경적 변인만을 고려한 시각이나, 은퇴에 대한 재

정적 준비행동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반응적이라는 점에서 심리내적 변인만을 고려한 시각 모두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 논의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소수의 선행연구가 분야-편중적 시각의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심리내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 모두를 고려한 균형 있는 시각을 통해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 행동을 결정하는 변인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및 개념적 틀

1)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을 위한 이론적 논의

본 연구는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과 같은 사회적 행동에 이론적 논리를 제공하는 (1) 계획된 행동이론과 (2) 계층적 성격이론을 근거로 전개되었다.

(1)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계획된 행동이론은 합리화된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behavior)으로부터 발전되었으며 사회적 행동 예측에 널리 도입되어 왔다(Astrom and Okullo, 2004). 계획된 행동이론의 중심명제는 '미래의 행동은 특정 행동에 대한 행동수행의도와 수행의도의 인지적 기저를 이루는 개인의 태도 및 주관적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로 요약된다(Sheeran and Taylor, 1999). <그림 1>에 도식화된 바와 같이, 계획된 행동이론은 미래의 행동에 대한 행동수행의도의 영향력에 이론적 초점을 두며 태도 및 주관적 규범 등의 인지적 구조가 행동수행의도를 구성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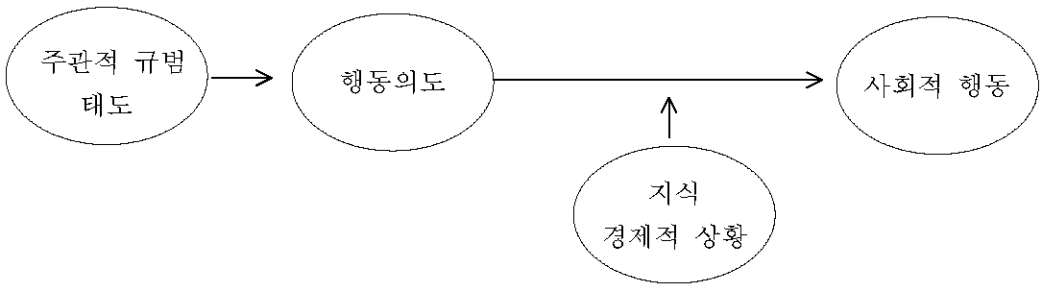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행동수행의도는 특정행위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부여의 힘을 의미한다(Ajzen, 1991). 선행연구에 의하면 행동수행의도는 사회적 행동의 최소 20%에서 최대 40%의 분산을 설명한다(Conner and Armitage, 1998; Godin and Kok, 1996). 그러나 행동수행의도가 미래 행동에 대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행동수행의도와 양립할 수 없는 대립적인 의도가 발생하거나, 기대되는 행동의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등장하거나, 또는 기대되는 행동수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 행동수행의도가 미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한다고 설명한다(Rise, Thompson, and Verplanken, 2003).

계획된 행동이론은 사회적 행동의 한 형태인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의 이해에도 유용한 이론적 패러다임(paradigm)을 제공한다. 계획된 행동이론의 핵심논지에 의하면,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은 은퇴에 대해 재정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개인의 은퇴준비의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의 경우 은퇴 후 생계를 위해 재정적 준비를 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가 저축, 또는 연금가입과 같은 구체적 은퇴준비행동을 유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은퇴준비의도는 은퇴 또는 미래에 대한 개인의 태도나 주관적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재정적 위기 등의 방해

요인이 등장할 경우 저축 또는 연금가입에 대한 개인의 의도는 실질적인 저축행위로 연계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

계획된 행동이론이 가정하는 바와 같이, 재정적 위기 등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을 설명하는 중요변인이라는 논지는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어 왔다. 특히 가족의 소득은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주목되어 왔다(문숙재·김순미, 1997). 혹은 전문가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에 대한 연구(Richardson and Kilty, 1989)에서 가족의 소득은 재정적 준비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결정적인 변인으로 규명되었으며 한국 직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소득은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문조·전귀연, 2004). 그러나 문숙재와 김순미(1997)의 연구에서 가족의 근로소득액은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간 차이를 보였다.

Yuh와 DeVaney(1996)의 연구에서는 순자산액이 증가할수록 가입연금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순자산이 은퇴준비에 갖는 정적인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국내연구(문숙재·김순미, 1997)에서 가계의 금융자산액이 높을수록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또한 주택의 소유 역시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국외 연구(Richardson and Kilty, 1989; Yuh and Devaney, 1996)에서 일관성 있게 제기된 반면 국내 연구(문숙재·김순미, 1997)에서는 주택 또는 토지와 같은 실물자산액이 적을수록 재정적 은퇴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외 연구와 대조를 보였다.



〈그림 1〉 계획된 행동이론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하면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의 수단 또는 은퇴 후 재정상황에 대한 지식의 결여 역시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의도가 실질적인 재정적 준비행동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막는다.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에 관한 의사결정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와 관련된 사전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고령 은퇴준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재정적 준비에 대한 사전정보가 부족한 경우, 은퇴에 대한 재정적 투자계획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적 준비를 위한 지식이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재확인했다(Hershey, Walsh, and Broughm,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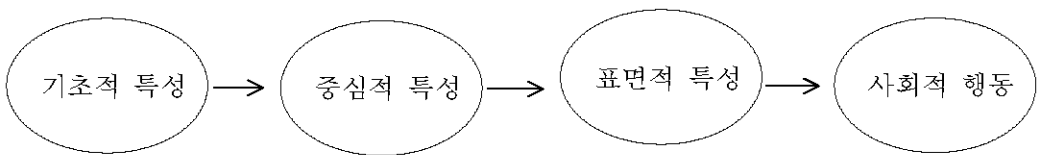
(2) 계층적 성격모델(hierarchical personality model)

성격을 여러 단계의 계층적 구조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Allport(1961)로부터 시작되어 Buss(1989)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계층적 성격모델은 인간의 성격이 기초적, 중심적, 그리고 표면적 특성 등 세 계층의 선형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성격을 구성하는 3개의 계층 중 가장 깊은 층에 존재하는 것이 기초적 특성(cardinal trait)이다. 기초적 특성의 가장 일반적인 모형은 다섯-요인모형으로 외향성, 합의를, 지각, 신경증, 개방성이 기초적 특성을 구성한다고 설명한다(Barrick and Mount, 1991; Panunonen, Costa, and McCrae, 1985). Mowen(2000)은 다섯-요인모형을 원형으로 여섯-요인모형을 발전시켰다. 여섯-요인모형은 성격의 기초적 특성이 개방성, 지각, 정서적 안정성, 물질주의, 내향성, 그리고 환기에 대한 욕구 등 여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기초적 특성을 이루는 구성요인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거나 기초적 특성을 이루는 요인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는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Hershey, and Mowen, 2000).

중심적 특성(central trait)은 기초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 중심적 특성은 기초적 특성, 개인이 소속된 문화, 그리고 개인의 교육적 배경이 조합된 결과물이다(Mowen and Spears, 1999). 기초적 특성과 중심적 특성에 이어, 성격의 가장 외부 층에 존재하는 것이 표면적 특성(surface trait)이다. 표면적 특성은 기초적 특성과 중심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며 수백 종류의 다양한 표면적 특성이 존재한다(Buss, 1989). 성격의 가장 깊은 층에 자리한 기초적 특성이 환경에 상대적으로 비종속적인 반면 성격의 가장 외부 층에 존재하는 표면적 특성은 환경에 상대적으로 민감하다(Asendorpf and Aken, 2003).

Mowen은 계층적 성격모델을 확대하여, 기초적 특성과 중심적 특성이 표면적 특성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성격의 기초적, 중심적, 그리고 표면적 특성이 사회적 행동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Mowen(2000; 1999)은 소비행위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우선 기초적 특성이 미래에 대한 견해와 같은 중심적 특성을 결정하고, 이어 미래에 대한 견해는 사회적 행동의 하나인 소비행위를 결정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계층적 성격모델이 사회적 행동이해에 유용한 이론임을 실증하였다. 또한 Hersey와 Mowen(2000)은 중심적 특성인 미래에 대한 시각이 표면적 특성인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이어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은 은퇴에 대한 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계층적 성격모델이 은퇴에 대한 준비행동의 이해에도 유용한 이론임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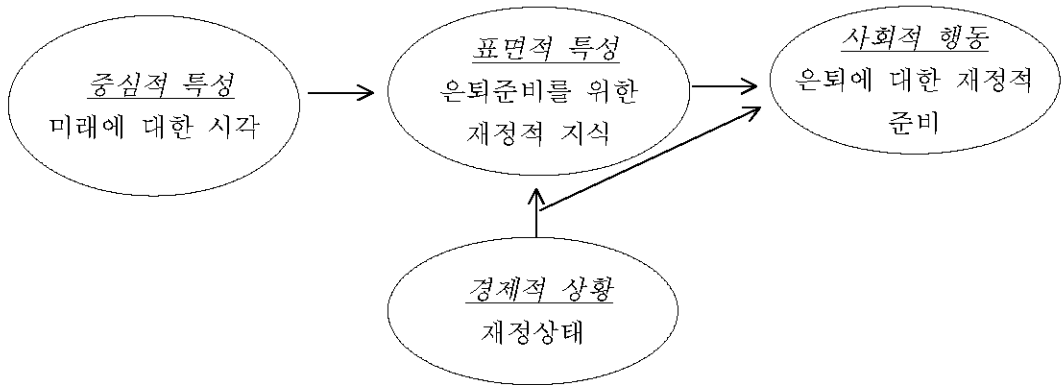


〈그림 2〉 계층적 성격모델

2) 개념적 틀 및 연구문제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의 결정변인을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은 <그림 3>에 제시되었다. 계층적 성격모델의 개념적 논리에 따라, 개인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은 '미래에 대한 시각'과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즉 성격의 중심적 특성인 '미래에 대한 시각'은 표면적 특성인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어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은 사회적 행동인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하여, 개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을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추가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행동으로써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은 '미래에 대한 시각',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 그리고 '경제적 상황'의 조합적 결과물로 개념화되었다.



<그림 3>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를 위한 개념적 틀

개념적 틀과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연구문제>

사회적 행동으로써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을 결정하는 개념적 구조는 무엇인가?

가설 1. 미래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일수록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이 높다.

가설 2.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이 높을수록 은퇴를 위한 재정적 준비행동수행 정도가 높다.

가설 3. 경제적 상황이 좋을수록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이 높다.

가설 4. 경제적 상황이 좋을수록 은퇴를 위한 재정적 준비행동수행 정도가 높다.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사회조사연구로 설계되었으며 건국대학교 Silver Care Research Center에 의해 조사된 '충주지역 고령인구의 보건·복지 실태' 자료가 분석되었다. '충주지역 고령인구의 보건·복지 실태'는 충주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307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 선정은 다단계 임의표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우선 충주지역 25개 읍·면·동 중 5개 동과 5개 읍이 선정되었으며, 다음 단계에서 앞서 선정된 10개 읍·동에서 '충주지역 교통수당지급 대상자 명단'을 표본의 틀로 하여 각각 50명의 노인을 임의표집 하였다. 최종표집된 500명의 조사대상자 중 307명이 조사에 응해 61.4%의 응답률을 보였다. 자료수집은 2회의 면접원 교육을 마친 사회복지학과와 간호학과 재학생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구조화된 대면면접기법을 사용하였다.

2) 분석대상자

307명의 응답자 중 신뢰도가 낮은 사례를 제외한 253명 노인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분석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4.05(sd=5.80)세로 남성노인이 45.06%(n=114) 그리고 여성노인이 54.94%(n=1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64.43%(n=163)의 노인이 기혼유배우자, 34.78%(n=88)의 노인이 사별, 그리고 0.80%(n=2)의 노인이 이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거나 서당을 다닌 노인은 39.93%(n=101), 초등학교를 졸업한 노인은 47.43%(n=120), 중학교를 졸업한 노인은 5.53%(n=14), 고등학교를 졸업한 노인은 4.35%(n=11), 그리고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닌 노인은 2.77%(n=7)에 불과했다. 글을 쓰거나 읽을 줄 아는 노인은 66.01%(n=167), 문맹인 노인은 33.99%(n=86)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중인 노인은 32.81%(n=83)에 불과했으며 67.19%(n=170)의 노인이 비경제활동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 도심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44.27%(n=112),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55.73%(n=141)로 거주지역별 구성비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자 노인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399,221(sd=425,390)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100,000원에서 최고 2,000,000원의 비교적 넓은 범주를 보였다. 분석대상자의 83.40%(n=211)가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5.93%(n=15)는 전세, 3.96%(n=10)는 월세, 그리고 6.72%(n=17)의 노인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분석대상자의 인구·사회·경제학적 배경 N=253

변수	분류	% (n)
성별	남성	45.06(114)
	여성	54.94(139)
결혼	기혼 유배우자	64.43(163)
	사별	34.78(88)
	이혼	0.80(2)
교육	무학·서당	39.93(101)
	초등학교 졸업	47.43(120)
	중학교 졸업	5.53(14)
	고등학교 졸업	4.35(11)
	대학교 중퇴이상	2.77(7)
한글해독	한글해독	66.01(167)
	문맹	33.99(86)
경제활동	경제활동	32.81(83)
	비경제활동	67.19(170)
거주지	동	44.27(112)
	읍·면	55.73(141)
주택	자가	83.40(211)
	전세	5.93(15)
	월세	3.96(10)
	영구임대주택	6.72(17)

3) 분석변수 및 측정도구

(1) 미래에 대한 시각

미래에 대한 시각은 최성재(2000)에 의해 개발된 '삶의 만족도' 문항 중 미래에 관한 견해를 묻는 3개의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나는 오래오래 살고 싶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희망이 있다', '앞으로 내 주위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의 세 문항을 질문하였으며 0점에서 2점까지의 3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높은 점수는 미래에 대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반영한다.

미래에 대한 시각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3개 질문이 구조적으로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행하였다. 주성분분석 결과, 아이겐 값(Eigen value)이 1을 초과하는 하나의 주성분(Eigen value=1.59)이 추출되었다. 이는 미래에 대한 시각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3개의 질문이 동일한 개념적 구조를 나타내는 지표임을 의미한다.

(2)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은 Hershey와 Mowen(2000)에 의해 개발된 두 개의 질문 '은퇴한 후 안락한 생활을 위해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알고 있(었)다'와 '은퇴한 후 안락한 생활을 위해 한 달 평균 어느 정도를 저금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를 통해 측정되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높은 점수는 높은 수준의 재정적 지식을 의미한다.

주성분분석 결과, 두 개의 질문으로부터 아이겐 값이 1을 초과하는 하나의 주성분(Eigen value=1.73)이 추출되어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두 개의 질문이 동일한 개념을 대표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3) 경제적 상황

경제적 상황은 노인의 한달 평균용돈, 주관적으로 인지한 재정 만족도, 그리고 주택자산을 통해 측정되었다. 한달 평균용돈은 만원을 단위로 연속적으로 측정되었으며 재정 만족도는 '매우 어렵다'에서 '매우 여유 있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높은 점수는 높은 수준의 재정 만족도를 의미한다. 주택자산을 자가, 전세, 월세, 영구임대주택의 순으로 서열화되었다.

세 문항에 대한 주성분분석 결과, 아이겐 값이 1을 초과하는 하나의 주성분(Eigen value=1.32)이 추출되었다. 주성분분석을 통해 한달 평균용돈, 주관적으로 인지한 재정 만족도, 그리고 주택자산의 세 문항이 동일한 개념적 구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지표임이 확인되었다.

(4)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은 Hershey와 Mowen(2000)이 고안한 두 개의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은퇴한 후 저축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계산해 보았다', '은퇴 후를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저금하고 있(었)다'가 질문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높은 점수는 은퇴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정도의 재정적 준비행동을 의미한다.

두 개의 문항에 대한 주성분분석 결과, 아이겐 값이 1을 넘는 하나의 주성분(Eigen value=1.60)이 추출되었다. 주성분분석 결과에 의해 두 문항이 동일한 개념적 구조를 나타내는 지표임이 검증되었다.

〈표 2〉 주성분분석 결과

잠재적 변인	관찰변인	주성분의 아이겐값 (eigen value)
미래에 대한 시각	FC1	1.59
	FC2	
	FC3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	RTK1	1.73
	RTK2	
경제적 상황	ES1	1.32
	ES2	
	ES3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	RTBH1	1.60
	RTBH2	

4) 분석방법

앞서 제기된 본 연구의 가설은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e equation model)을 통해 검증되었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잠재변인을 포함한 경로분석으로 잠재변인(latent variable) 사이의 가정된 인과관계의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Hoyle, 1995). 구조방정식모형은 다수의 독립변수와 다수의 종속변수사이의 직·간접적 영향력을 동시에 평가하며 가정된 인과관계의 적합성을 포괄적으로 계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통계분석법과 차별된 장점을 갖는다. 구조방정식모형은 관측된 변인과 잠재변인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과 잠재변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정한 구조모형(structure model)으로 구성된다(Schumacker and Lomax, 1996). 하나 이상의 독립변수와 하나 이상의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방정식모형은 본 연구의 인과관계 모형을 평가하는데 가장 적합한 분석법으로 판단된다.

특히, 조사당시 현재 은퇴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경제활동노인과 은퇴에 대한 준비가 이미 완료된 비경제활동노인 사이에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의 시간적 차이로 인한 집단차가 가정되므로 경제활동노인과 비경제활동노인을 별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다집단-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였다. 다집단-구조방정식모형은 집단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변수간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석법으로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와 회귀계수의 집단차를 산출함으로써 집단간 동질성(equality)을 검증한다(Bollen, 1989). 구조모형에서 가정된 인과관계와 회귀계수에 대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 두 집단은 동질성이 높은 집단이므로 단일집단으로 처리·분석되어야 한다(Joreskog and Sorbom, 1993). 계수산출방식은 최대우도추정방식을 선택했으며 다집단-구조방정식모형은 Lisrel 8.7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1) 집단 동질성(Test of equality)

다집단-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결과, 재정적 은퇴준비행동을 설명하는 구조모형은 현재 은퇴를 준비 중인 경제활동노인과 과거에 은퇴준비를 마친 비경제활동노인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82, p=0.87$). 이는 재정적 은퇴준비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가정되었던 잠재변인들 사이의 인과관계와 회귀계수가 두 집단간에 동질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은 두 집단을 단일집단으로 처리·분석되었다

2)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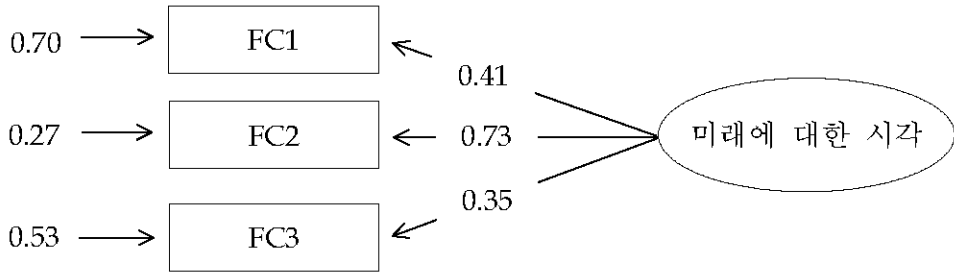
측정모형은 잠재변인과 관찰변인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잠재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지표로서 관찰변인이 어느 정도 정밀한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측정모형의 목적이다. 따라서 측정모형의 분석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의 두 개념이 강조된다. 측정모형분석을 통해 산출된 방정식에서, 관찰변인의 β 값은 표준화된 요인부하값 또는 표준화된 타당도 계수로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어느 정도 측정하는가의 타당도를 의미한다(Bollen, 1989). 일반적으로 관찰변인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Bollen, 1989).

$$\frac{\text{타당도 계수(validity coefficient)}}{\text{오차분산(error variance)}} > 2$$

반면 산출된 방정식의 자승상관관계계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coefficient) R^2 는 잠재변인과 관찰변인 사이의 선형관계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일반적으로 관찰변인의 신뢰도로 해석한다(Joreskog and Sorbom, 1993). 일반적으로 자승상관관계계수가 0.4보다 클 경우 관찰변인의 신뢰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Bollen, 1989).

(1) 미래에 대한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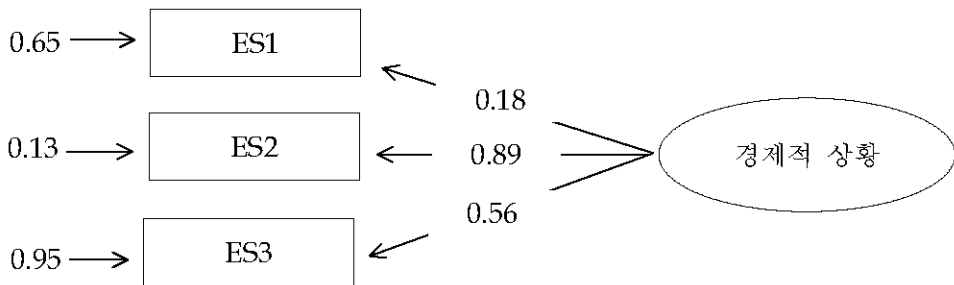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나는 오래오래 살고 싶다'(FC1)의 표준화된 타당도 계수는 0.41, 오차분산(error variance)은 0.70, 그리고 R^2 는 0.20로 나타났다. 오차분산에 대한 타당도계수의 비가 2보다 크다는 기준에 비추어 FC1은 미래에 대한 시각을 측정하는 관찰변인으로서 낮은 타당도를 보였으며, 신뢰도 역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 희망이 있다'(FC2)는 표준화된 타당도 계수가 0.73, 오차분산이 0.27로 미래에 대한 시각을 측정하는 관찰변인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타당도를 보였다. FC2의 R^2 는 0.66으로 기준치 0.4보다 높아 FC2의 신뢰도 역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내 주위에 더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FC3)의 표준화된 타당도 계수는 0.35, 오차분산은 0.53으로 오차분산에 대한 타당도 계수의 비가 2보다 작아 FC3의 타당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C3의 R^2 는 0.18로 신뢰도 역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 FC3는 미래에 대한 시각을 측정하는 관찰변인으로써 타당도와 신뢰도 모두 곤고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미래에 대한 시각을 측정하는 세 개의 관찰변인 중 FC2만이 타당도와 신뢰도가 제시된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미래에 대한 시각'의 측정모형

(2) 경제적 상황

'주택자산'(ES1)의 표준화된 타당도 계수는 0.18, 오차분산은 0.65로 오차분산에 대한 타당도계수의 비가 0.27에 그쳐 경제적 상황을 대표하는 관찰변인으로써 ES1의 타당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S1의 신뢰도 역시 R2가 0.04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ES2)는 표준화된 타당도 계수가 0.89로 높은 반면 오차분산은 0.13으로 낮아, 오차분산에 대한 타당도 계수의 비가 6.8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ES2의 자승상관관계계수 역시 0.94로 높게 나타나 '재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경제적 상황을 측정하는 관찰변인으로써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달 평균 용돈'(ES3)은 타당도 계수가 0.56, 오차분산이 0.95로 오차분산에 대한 타당도 계수의 비가 0.58에 그쳤다. ES3의 자승상관관계계수는 0.0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ES3는 경제적 상황을 측정하는 관찰변수으로써 신뢰도와 타당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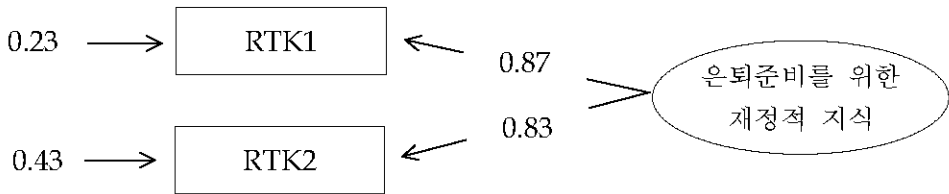


〈그림 5〉 '경제적 상황'의 측정모형

(3)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

〈그림 6〉에 정리된 바와 같이 '은퇴한 후 안락한 생활을 위해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RTK1)의 표준화된 타당도 계수는 0.87, 오차분산은 0.23으로 나타났다. RTK1의 오차분산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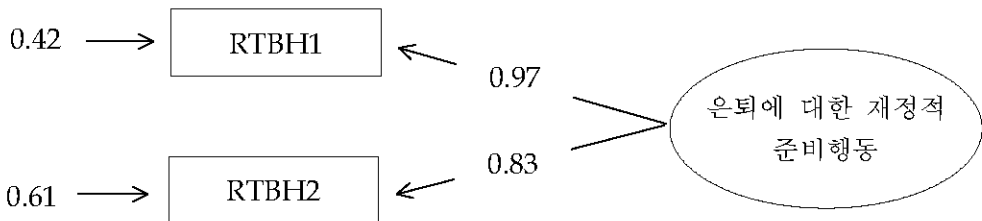
타당도 계수의 비는 3.78로 기준치 2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RTK1의 자승상관관계계수 R^2 는 0.67로 기준치 0.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급된 결과는 RTK1이 노인 경제활동인구의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을 타당성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관찰변인임을 나타낸다. '은퇴한 후 안락한 생활을 위해 한달 평균 어느 정도를 저금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RTK2)의 표준화된 타당도 계수는 0.83 그리고 오차분산은 0.34로, RTK2의 오차분산에 대한 타당도 계수의 비는 2.44로 분석되었다. RTK2의 자승상관관계계수는 0.6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RTK2는 '은퇴에 대한 재정적 지식'의 관찰변인으로써 기준치 이상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6〉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의 측정모형

(4)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

'일을 그만둔 후 저축금액이 어느 정도가 될지 계산해 보았다'(RTBH1)의 표준화된 타당도 계수는 0.97, 오차분산은 0.42로 RTBH1의 타당도는 기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TBH1의 자승상관관계계수는 0.69로 신뢰도 또한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RTBH1은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에 대한 관찰변인으로 신뢰할 만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였다. '일을 그만둔 후를 위해 매달 충분한 금액을 저축하고 있다'(RTBH2)의 표준화된 타당도 계수는 0.83 그리고 오차분산은 0.66으로 나타났다. RTBH2는 상대적으로 높은 타당도 계수에도 불구하고 오차분산 역시 낮지 않아 오차분산에 대한 타당도 계수의 비는 기준치 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TBH2의 자승상관관계계수는 0.43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RTBH2는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을 측정하는 변인으로 타당도는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7〉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의 측정모형

3) 모형평가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모두 포함한 전체 구조방정식모형의 개념적 적절성이 검증되었다. 구조방정식모형의 개념적 적절성은 모형합치도(goodness of fit)를 통해 계측된다. 모형합치도는 연구자에 의해 가정된 이론적 모형이 암시하는 변량-공변량과 대상자를 통해 관찰된 변량-공변량 사이의 일치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박광배, 2000) 모형합치도를 지수화한 모형합치함수는 <표 3>에 열거된 바와 같이 다양하다.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을 설명하고자 가정된 본 연구에서 가정된 구조방정식모형의 모형합치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카이제곱 지수는 29.47($\chi^2=29.47$, $p=0.54$)로 영가설 ‘가정된 이론적 모형의 변량-공변량과 실제적인 변량-공변량이 다르지 않다’가 채택되었다. 그 외에도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0.0), Normed fit index(NFI=0.90), Goodness of fit index(GFI=0.96),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AGFI=0.89)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모형합치도를 보였다. 이는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가정된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이 개념적으로 타당함을 의미한다.

<표 3> 모형합치도

모형합치 지수	모형 합치도	합치 기준(Acceptable level)
Chi-square	29.47($p=0.54$)	$p>0.5$
RMSEA	0.0	0.05 보다 작은 경우
NFI	0.90	0.90에 가까우면 거의 완벽한 합치
GFI	0.96	0.90에 가까우면 거의 완벽한 합치
AGFI	0.89	0.90에 가까우면 거의 완벽한 합치

4) 구조모형(structure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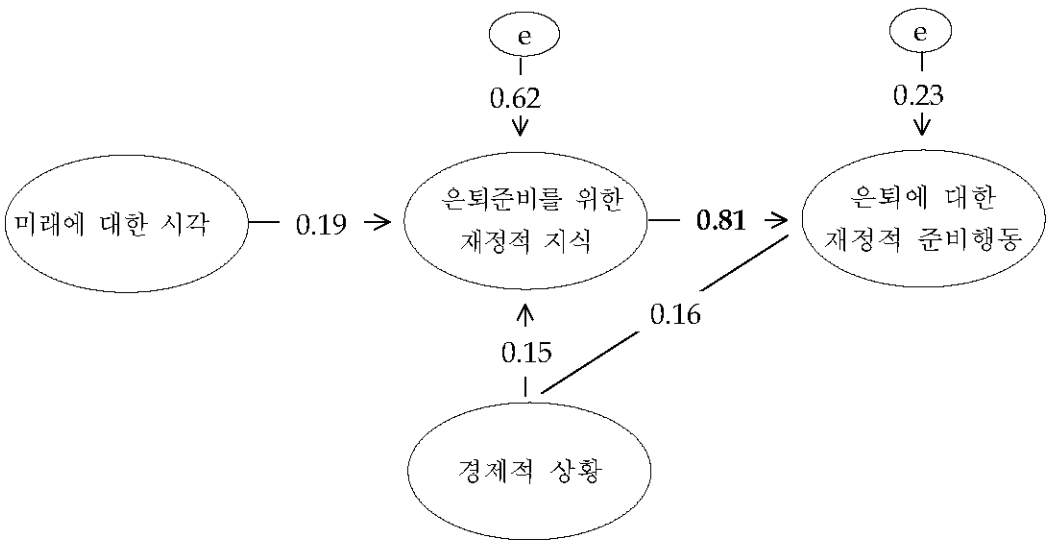
구조모형은 관찰변인을 통해 측정된 잠재변인을 포함한 경로모형으로 잠재변인들 간의 가정된 인과관계를 검증한다. 구조모형에서의 회귀계수(regression coefficient)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직접적인 인과적 영향력을 의미한다. 각 회귀계수의 표준오차는 추정된 계수값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수치로 추정된 계수값이 실제 모수에 얼마나 근접한가를 반영하는 지수이다(박광배, 2000). 추정된 회귀계수값을 표준오차로 나눈 값이 t값이며 t값은 ‘모집단에서의 계수값이 0’이라는 영가설을 검증하는 통계치로써의 의미를 갖는다. 측정모형에서와 달리, 구조모형에서 자승상관관계계수 R^2 는 독립변인에 의해 설명된 종속변인의 분산을 의미한다(Joreskog and Sorbom, 1993).

<그림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두 개의 외재적 변인, ‘미래에 대한 시각’과 ‘경제적 상황’ 그리고 두 개의 내재적 변인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과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

동'을 포함한다. '미래에 대한 시각'의 회귀계수는 0.19($b=0.19, t=1.14, se=0.13$)로 '미래에 대한 시각'이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 '미래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일수록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이 높다'는 기각되었다.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의 회귀계수는 0.81($b=0.81, t=6.50, se=0.12$)으로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은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이 높을수록 은퇴를 위한 재정적 준비행동 수행 정도가 높다'가 지지되었다. '경제적 상황'의 회귀계수는 0.15($b=0.15, t=1.42, se=0.13$)로 '경제적 상황' 역시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3, '경제적 상황이 좋을수록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이 높다'가 기각되었음을 의미한다.

'경제적 상황'의 '은퇴에 대한 준비행동'에 대한 회귀계수는 0.16($b=0.16, t=1.67, se=0.09$)으로 '경제적 상황'은 '은퇴에 대한 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 '경제적 상황이 좋을수록 은퇴를 위한 재정적 준비행동 수행정도가 높다'는 기각되었다.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은 두 외재적 변인 '미래에 대한 시각'과 '경제적 상황'에 의해 총 분산의 3.6%($R^2=0.036$)가 설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은 두 외재적 변인, '미래에 대한 시각'과 '경제적 상황', 그리고 내재적 변인,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에 의해 총 분산의 78%($R^2=0.78$)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을 위한 구조모형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을 결정하는 개념적 구조를 규명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을 고찰하기 위한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은 계획된 행동이론과 계층적 성격이론의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발전되었으며 개념적 틀에서 가정된 개념적 구조간의 인과관계는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만이 은퇴를 위한 재정적 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이 높을수록 은퇴를 위한 재정적 준비행동 수행정도가 높다'는 가설만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준비행동을 설명하고자 제시된 본 연구의 인과관계 모형은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준비행동 분산의 78%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GFI, AGFI, 그리고 RMSEA 등을 통해 조사된 모형합치도 역시 요구되는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은퇴를 위한 재정적 준비행동은 미래에 대한 시각,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고 개념화 된 본 연구의 인과관계 모형은 은퇴를 위한 재정적 준비행동 이해에 유의미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모형의 높은 일치도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행동이론과 계층적 성격이론에 기초하여 가정된 개념적 구조간의 인과관계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규명되었다. 성격이론이 인간의 행동을 성격의 중심적 특성과 표면적 특성의 영향에 의한 결과물로 주장하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성격의 표면적 특성인 은퇴준비에 대한 재정적 지식이 인간의 사회적 행동인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성격의 중심적 특성인 미래에 대한 시각이 표면적 특성인 은퇴준비에 대한 재정적 지식에 미치는 실증적 영향력은 지지되지 못했다.

비록 중심적 특성인 미래에 대한 시각이 표면적 특성인 은퇴준비에 대한 재정적 지식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유의수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미래에 대한 시각과 은퇴준비에 대한 재정적 지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영향의 방향성이라는 면에서 선행연구(Hershey and Mowen, 2000)의 결과와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 중심적 특성인 미래에 대한 시각이 표면적 특성인 은퇴준비에 대한 재정적 지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 유의수준에 미치지 못한 원인의 일부는 측정모형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고려된다. 중심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세 개의 질문 중 타당도와 신뢰도를 만족시키는 질문은 한 개에 그쳤으며 따라서 측정모형의 오차분산이 컸다. 이로 인해 중심적 특성이 표면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축소된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적 상황은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에 미치는 영향과 은퇴를 위한 재정적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르면 불안정한 재정상태는 은퇴에 대해 준비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가 실질적인 은퇴준비행동으로 연계되는 것을 방해한다. 따라서 경제적 상황은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지지

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축소기 가계의 경우 가계의 근로소득액과 가계의 실물자산액은 은퇴 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 연구결과와도 차이를 보였다(문숙재·김순미, 1997).

본 연구의 결과가 계획된 행동이론과 국내 선행연구의 이론적 또는 실증적 논의를 지지하는데 실패한 원인 또한 측정모델의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제적 상황을 측정하기 위해 월평균 용돈, 주택자산, 그리고 재정적 만족감의 세 가지 측정변인을 사용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수입은 개인 또는 가계의 근로소득을 통해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근로소득이 높은 결측치를 보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대적으로 충실한 응답률을 보인 월평균 용돈이 대안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가계의 실물자산액을 주택 또는 토지의 가치를 통해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대신 주택의 소유형태에 따라 서열적으로 측정하였다. 더욱이 약 85%의 응답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자산 자체의 분산이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주관적으로 인지한 재정적 만족감의 경우, 경제적 상황을 측정하는 변인으로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용돈과 주택소유 여부의 지표에 내재되어 있던 문제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소멸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격의 표면적 특성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계층적 성격이론과 지식은 행동의도가 실질적 행동으로 표면화되는데 결정적 변인이라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논지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지지되었다. 두 이론의 논지와 같이 표면적 특성인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은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은퇴준비의 재정적 수단에 대한 풍부한 지식은 은퇴 후를 대비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적 준비행위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이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에 근거한다. 인과적 영향력의 유의성을 떠나 성격의 중심적 특성에 관한 개입은 실질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 미래에 대한 시각으로 개념화된 성격의 중심적 특성은 성격의 깊은 차원에 존재하는 것으로 표면적 특성과 비교해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중립적이다. 따라서 중심적 특성이 변화하기란 쉽지 않다. 반면 표면적 특성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환경-종속적이라는 점에서 표면적 특성에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표면적 특성인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은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변인으로 규명되었다. 따라서 개입의 효과성과 영향력의 유의성이라는 관점에서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을 증진하는 것이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실천적 개입 전략 일 수 있다. 문제제기에 논의된 바와 같이,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는 노후의 삶에 대한 질적 보장이라는 미시적 차원뿐만 아니라 노인빈곤 예방이라는 거시적 중요성을 지닌다. 따라서 은퇴에 대한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적 준비행동을 통해 노년기의 재정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퇴에 대한 재정계획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권승·황규선. 2004. "노년층의 은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3): 69-81
- 김학주. 2002. "고령/중년 노동자의 조기은퇴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3): 37-53
- 문숙재·김순미. 1997.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5): 1-15.
- 박광배. 2000. 『다변량분석』 서울: 학지사.
- 박경숙. 2001. "중장년기 종사상 지위와 은퇴과정의 다양성". 『노동경제논집』 24(1): 177-206
- 배문조·전귀연. 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89-101
- 안중범·전승훈. 2004. "은퇴결정과 은퇴 전 후 소비의 상호작용". 『한국노동경제논집』 27(3): 1-23.
- 장지연. 2002.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장지연. 2003. "중고령자의 경력이동 대안적 은퇴과정으로서의 근로시간단축과 자영업창업의 비중". 『한국사회학』 37(2): 95-123.
- 최성재. 2000. 『노인복지론』. 서울대출판부.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 Allport, G. W.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Asendorpf, J. B., and Aken, M. A. G. 2003. "Personality relationship transact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71(4): 629-666.
- Astrom, A. N., and Okullo. I. 2004. "Temporal stabilit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prospective analysis of sugar consumption among Ugandan adolescents". *Community Dentistry and Oral Epidemiology* 32: 426-434.
- Beehr, T. A., Glazer, S., Nielson, N., and Farmer, S. J. 2000. "Work and nonwork predictors of employees' retirement ag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7: 206-225.
- Bollen, K. 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York: Wiley.
- Brown, J. J., Kerr, J. R., and Johnson, B. S. 2004. "Retirement savings plan for radiologis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Radiology* 1: 183-187.
- Buss, D. M. 1989. "Personality as trait". *American Psychologist* 44: 1378-1388.
- Carver, C. S. and Baird, E. 1998. "The American dream revisited". *Psychological science* 9: 289-292.
- Conner, M., and Armitage, C. J. 1998. "Extend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8: 1429-1464.
- Costa, D. 1998. *The evolution of retire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uflo, E., and Saez, E. 2002. "Participation and investment decision in a retirement pla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5: 121-148.
- Gordin, G. and Kok, G. 1996.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11: 87-98.

- Hershey, D. A., Walsh, D. A., Broughm, R., Carter, S., and Farrell, A. H. 1998. "Challenges of training pre-retirees to make sound financial planning decisions". *Educational Gerontology* 24: 447-470
- Hershey, D. A., and Mowen, J. C. 2000.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financial preparedness for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40(6): 687-697.
- Horioka, c., and Okui, M. 1999. "A U.S.-Japan comparison of the importance and determinants of retirement saving". *Economics Letters* 65: 365-371.
- Hoyle, R. H. 1995. "The structure equation modeling approach: basic concepts and fundamental issues". In R. H. Hoyle(Ed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Thousand Oak, CA: Sage publications.
- Joreskog, K., and Sorbom, D. 1993. *Lisrel 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the SIMPLIS command languag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Lo, R., and Brown, R. 1999. "Stress and adaptation".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Mental Health Nursing* 8: 30-38.
- Mowen J. C. and Spears, N. 1999. "A Hierarchical model approach to understanding compulsive buying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8: 407-430.
- Mowen, J. C. 2000. *The 3M model of motivation and personality*. Norwell, MA: Kluwer Academic Press.
- Panunonen, S. V. 1998. "Hierarchical organization of personality and prediction of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538-556.
- Papke, L. E. 2003. "Individual financial decisions in retirement saving plan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 39-61.
- Poterba, J. M. 1996. "Personal saving behavior and retirement income modeling". In E. A. Hanushek and N. L. Maritato(Eds.), *Assessing knowledge of retirement behavior*,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Richardson, V., and Kilty, K. M. 1989. "Retirement financial planning among black professionals". *The Gerontologist* 29: 32-27.
- Rise, J., Thompson, M., and Verplanken, B. 2003. "Measuring implementation intentions in the context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4: 87-95.
- Schumacker, R. E., and Lomax, R. G. 1996. *A beginner's guide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Sheeran, P., and Taylor, S. 1999. "Predicting intentions to use condom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9: 1624-1675.
- Singleton, J. F., and Keddy, B. A. 1991. "Planning for retirement". *Acivities, Adaption, and Aging* 16: 49-55.
- Yuh, Y., and DeVaney, S. A. 1996. "Determinants of couple's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funds". *FCP* 7: 31-39

Wakabayashi, M. 2001. "Retirement saving in Japan".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15: 131-159.

Walker, J. 1996. *Changing concepts of retirement* Brookfield, VT: Ashgate.

Research on Financial Preparedness for Retirement Among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ged 65 or Older Based on Socio-Psycho Paradigm

Choi, Hye-Ji

(Konkuk University)

Lee, Young-Boon

(Konk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nceptual constructions which determined financial preparedness for retirement. This study was guided by two theoretical frameworks, planned behavior theory and hierarchical personality model. Based on two theories, the conceptual framework which aimed to explain financial preparedness for retirement were formulated.

Data from 'The health and welfare profile of the elderly aged 65 and or older in Chung-choo city' was analyzed. The subjects consisted of 87 economically active elderly population. Structure equation model was employed for statistical analyses.

The results of structure equation model revealed that the casual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perceived financial-planning knowledge and the level of financial preparedness for retirem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lso, the hypothesized structural model for financial preparedness for retirement had the good model fit.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from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retirement, preparedness for financial retirement, later life, structure equation model

[접수일 2005. 5. 30. 게재확정일 2005. 7. 29.]